

단신

**26화**  
미래자동차 학제전공 소개 및 입학안내 설명회

학제적 융합연구 및 복합 기술 교육에 초점을 둔 미래자동차 학제간 석, 박사과정에 관한 설명회가 개최된다

-16시 30분, 창의학습관(E11) 101호  
-yjpark3061@kaist.ac.kr로 사전 신청 가능

**28목**  
LED 교육 프로그램(EPLL) 안내 설명회

LG 이노텍의 오명석 LED연구소장이 'LED 조명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 후 LED 교육프로그램(EPLL)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15시~16시 20분, K빌딩 1층 Fusion Hall  
-참석한 학우들을 위한 LED 모니터 등 경품 증정 예정

동정

생명화학공학과 박현규 교수가 핵산 결합 분자인 메틸렌 블루를 이용해 '전기화학적 실시간 종합 효소 연쇄 반응 기술'을 개발했다. 이 연구는 분석화학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인 아날리스트에 표지논문으로 선정되었다

생명과학과 김은준 교수와 강창원 교수의 공동연구팀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가 뇌의 신경 시냅스 단백질 부족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밝혀내어 의학학계 학술지인 네이처 메디신의 온라인 판에 게재되었다

# 따뜻한 캠퍼스 만들기

일련의 사건으로 어두워진 우리 학교에 활력과 따뜻함을 불어 넣으려는 새로운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항공우주공학전공 이소연 교수가 창의학습관 앞에서 자비로 구매한 딸기 100상자를 학우들에게 나눠주었다. 이 교수는 전날 ARA에 익명으로 '딸기 100박스를 나눠줍시다'라는 글을 올렸고, 다음날 창의학습관 앞 잔디밭에서 근처를 지나가던 학우들과 함께 딸기 100상자를 나누어 먹었다. 우리 학교 기계공학전공 학사 97학번 동문인 이 교수는 잇단 자살로 슬픔에 잠긴 학우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또한, 학우들에게 "입학 후, 시간이 지날수록 비교적 여유가 생기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 안타깝다"라고 말하며, "후배들의 학교 생활이 즐거워지기를 바란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차재목 학우(전기및전자공학과 08)는 "요즘 좋지 않은 소식이 너무 많아서 개인적으로 우울했는데, 교수님의 말씀이 큰 격려가 된다"라고 말하며, "이번 딸기 파티는 정말 뜻깊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과 15일에는 우

리 학교 학생홍보대사 카이누리가 이들에 걸쳐 '프리허그 운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학우들이 많이 지나 다니는 태울관 앞과 동측 식당 앞에서 자체 제작한 팻말을 들고 지나가는 학우들에게 자유롭게 포옹했다. 팻말에는 'Free Hug'라는 문구와 학우들과 다 함께 이번 캠페인을 나누자는 의미에서 '따뜻함을 나눠요'라는 문구를 넣었다. 카이누리는 주황색 단체 후드티를 맞춰 입고, 유동 인구가 많은 점심시간 동안 이번 캠페인을 진행했다. 프리허그 운동을 계획한 한재준 카이누리 회장은 "지난 이틀간 수업이 대부분 휴강했을 때, 학생홍보대사로서 학우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곰곰이 생각해보았다"라며 "우울한 캠퍼스에 따뜻함과 활력을 불어넣고 싶어서 캠페인을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태울관 앞을 지나던 홍아름 학우(경영과학과 09)는 "개인적으로 프리허그 운동은 아직 낯설지만, 학우들이 다 같이 웃는 모습을 보니 보기 좋다"라고 말했다.

김슬기 기자  
bymysun@kaist.ac.kr



어려울 때일수록 다 같이 모여 함께 카이누리의 프리허그 운동과 이소연 교수와의 딸기파티로 캠퍼스가 밝아졌다

© 천민지 기자

# 제20대 학부 동연 '비상' 선본 당선

단일후보 출마로 찬반투표 최정은, 강다혜 후보 당선

지난 18일 최정은 정후보, 강다혜 부후보로 이루어진 '비상' 선거 운동본부(이하 비상 선본)가 제20대 학부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 회장단으로 당선되었다.

동연 회장단 선거는 동연에 속한 대표자가 뽑는 간선 선거로, 대표자 2/3 이상이 출석하고 재석 인원 중 과반수를 득표해야 당선된다. 단독 후보일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시행해 재석 인원 중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번 선거는 비상 선본 만이 단일 후보로 출마해 찬성, 반대 표결로 치러졌다. 유권자 89명 중 75명이 재석했으며, 이중 찬성 64표(85.3%), 반대 1표(1.3%), 기권 10표(13.3%)를 얻어 당선되었다.

동연 회장 선거는 매해 마지막 대표자회의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없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승인을 받아 이번 선거가 약 5개월가량 연기되었다.

당선된 최정은 동연 회장은 "동연이 '비상'해 학우들이 더 즐겁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못한 동아리 문화제와 동아리회지 등을 지원하고, 민원처리체계, 동연회칙 정비 등에 힘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인수협업체를 구성해 새 회장단에게 업무를 인수인계 중인 변규홍 전 동연 회장은 "20대를 맞이하는 만큼 이전까지 진행되어 온 사업이 잘 계승하길 바란다"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배수정 기자  
soojeongbae@kaist.ac.kr

# EEWS 에세이 대회 시상식 열려

21세기 에너지 소비와 환경 변화에 대한 고찰

지난 20일 창의학습관에서 EEWS대학원이 주관한 제1회 에세이 대회(2011 Essay Contest) 시상식이 열렸다.

이번 대회는 환경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열렸다. 에세이 주제는 '입을 수 있는 에너지 디바이스는 어떤 구조가 적합할까',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선 물질 유출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하루에 소비하는 화석에너지는 모두 얼마일까', '젖은 손을 말리는데 효율적이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은 무엇일까'가 제시되었다.

대상은 박용진 학우(생명화학공학과 08)에게 돌아갔다. 박 학우는

"창의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주제에 매력을 느껴 열심히 준비했다"라며 "주제와 글 속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노력이 중요했던 것 같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시상식과 더불어 EEWS대학원설명회도 열렸다. 설명회에는 대학원에 관심있는 학우 뿐만 아니라 해외 석학도 많이 참여했으며 EEWS 연구의 중요성과 전망을 논의했다. 또한, 세부 연구 분야에 대한 간략한 설명 시간도 있었다.

EEWS대학원은 에너지, 환경, 물, 지속가능성 문제에 관한 융복합 연구와 학제적 교육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설립되었다.

송민성 기자  
johnsong92@kaist.ac.kr

# 교수협의회 설문조사 결과 - 현행 제도, 개선 필요하다

교수협의회에서 우리 학교 교수와 학사과정 학우들을 상대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장학금 제도와 영어 강의, 인성교육 등에 관해 교수와 학우들의 의견을 물었다. 설문조사 결과, 교수 57%와 학우 45%가 '차등 수업료 부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특히, 차등 수업료 부과제도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와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두 그룹 모두 89%에 달했다.

현재 학우들에게 모든 과목을 영어로 수강하도록 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교수 52%, 학우 53%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주로 '과목 특성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교수 52%, 학우 53%)이었고, '영어강의 시행 여부를 과목 담당 교수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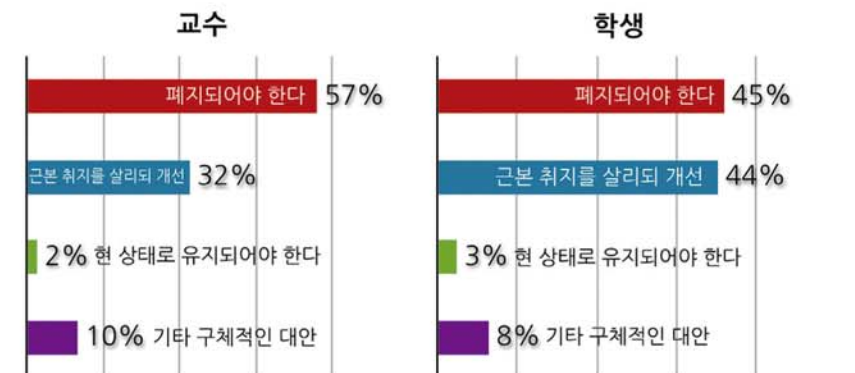
일임한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현행 영어 강의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교수 10%, 학우 13%)을 보여 영어 강의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신입생 디자인 과목에 대해서는 '학생의 전공 분야, 장래 희망 등을 고려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의견(교수 79%, 학우 66%)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학부생의 65%는 '신입생 디자인 과목에 할애하는 주당 시간이 과다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반면, 신입생 디자인에 대해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은 소수(교수 10%, 학우 23%)에 그쳐 신입생 디자인 과목 변화의 필요성을 내포했다.

정서 및 인성 교육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를 묻는 문항

에서 교수 22%가 '학생들의 자발적인 체육, 학술 및 창작 프로그램 지원'을 꼽았다. 이외에도 '다양한 문화 및 창작 관련 과외활동 지원(21%)', '전문적인 심리 카운슬링 강화(16%)'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교수 그룹은 학우들의 인성 교육을 위해 주로 다양한 문화 활동과 경험을 강조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학우들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다양한 문화 및 창작 관련 과외활동 지원(26%)'을 꼽았다. 또한, '교수와의 만남의 기회 증대(22%)', '졸업생 및 선배 학생들과의 멘토 제도 강화(18%)' 등으로 응답해, 인간관계와 소통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우들은 학교 생활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으로 '과도한 학업 부담(30%)'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 외에도 '축제 및 문화행사



차등 수업료 부과에 대한 교수협의회 설문조사 결과 교수와 학우 그룹 모두 현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다

© 천민지 기자

(18%)', '교우관계(13%)', '교양 수업의 질(13%)' 등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학업에 부담감을 느끼는 학우들을 대상으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67%가 '지나친 학내의 학업 경쟁'이라는 응답을 보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차등 수업료 부과 제도', '모든 과목을 영어로 수

업하는 강의제도', '빡빡한 전공 커리큘럼' 등이 있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우리 학교에 소속된 교수 420명과 학우 1,334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집계되었다.

김슬기 기자  
bymysun@kaist.ac.kr